

국토교통부, 경기도 안성 공사현장 붕괴사고에 긴급 대응

- 서울지방국토관리청·국토안전관리원 즉시 현장 출동
- 원 장관, 최선의 사고 수습 지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9일(수)에 발생한 경기 안성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국토관리청,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원희룡 장관은 “사고현장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”고 지시하였다.

담당 부서	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윤우 (044-201-3573)
		담당자	사무관	장연환 (044-201-3562)